달아오르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도슨트 교육 장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제공〉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Gwangju Design Biennale

개막 한달 앞 전시작품 운송 한창
해외 포스터디자인 300점 접수
전시 연출·도슨트 교육 등 시작
단체관람 사전예매도 줄이어

오는 9월 7일 개막하는 제 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 작품이 항공과 선박 편으로 운송이 이뤄지는 등 개막을 30여 일 앞두고 행사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은 올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주제전이 열리는 비엔날레 전시관 구축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본격적인 개막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광주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및 해외 작품의 운송이 이뤄지고 있으며, 오는 21일께 전시관 가벽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시 연출이 진행된다. 현재 주제전이 열리는 비엔날레 전시관에서는 현장 실측과 자재 반입, 전기·통신 등 전시를 위한 공사가 한창이다.

송진희 원장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 옴에 따라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보고 듣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오감만족' 행사가 되도록 다각도로 준비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마감된 '해외 포스터디자인 초대전'에는 30여 개국 300여점 이상의 작품이 접수되는 등 해외 참여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전시도슨트 8명에 대한 교육도 시작됐다. 기본교육에 이어 심화교육을 비롯해 현장교육 등 디자인비엔날레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실기 위주로 진행된다.

본격적인 행사를 앞두고 단체관람, 사전예매도 줄을 잇는 등 흥행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광주도시공사의 입장권 1000여 매 사전 예매를 비롯해 ㈜광주해양에너지, 전북 완주 봉서중, 광주 신창초교, 전남 여천고, 전남 보성고, 부산 강서구청 등이 사전예매를 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홍보 마케팅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시내 도로변 거리배너와 육교 현수막이 내걸려 행사 분위기를 점차 고조시키고 있는 것. 무엇보다 지난 달 19일 오픈한 광주신세계백화점 문화광장 팝업전시관의 'Meet & Eat' 작품이 눈길을 사로잡으며 사진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후문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식' 콘셉트에 맞춰 진행 중인 개막식 시민 초청행사에는 지난 6일까지 130명이 몰려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기도를 보여줬다.

한편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meet design(디자인을 만나다)'을 주제로 오는 11월 7일까지 광주 비엔날레전시관을 비롯해 시내 곳곳에서 열리며 본전시(테크놀로지, 라이프스타일, 컬처, 비즈니스 테마)를 비롯해 특별전, 기념전 등 다양한 디자인 전시가 펼쳐진다.

또한 국제학술행사, 디자인 체험?워크숍, 시민참여 프로그램,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 및 디자인 마켓 등도 예정돼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무형문화재에게 배우는 '전통문화예술'

전통문화관, 12월2일까지 예술강좌…16일까지 선착순 모집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풍년) 전통문화관은 22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무형문화재에게 배우는 전통문화예술강좌'를 연다.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참가신청 가능하며 오는 16일까지 강좌당 12명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자는 판소리부터 판소리 고법, 가야금 병창 및 전통음식, 탱화와 민화, 공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통문화예술을 예능·기능 보유자에게 배울 수 있다. 총 13강좌를 개설하며 22일부터 총 15차시에 걸쳐 진행할 예정.

판소리는 초~중급 과정으로 나눠 진행한다. 초급반은 광주시 지정 무형문화재 판소리(동초제 춘향가) 예능보유자인 박미정이 강의하며 중급반은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명창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한 방성춘과 김선이, 이순자 등이 진행한다.

아울러 판소리 고법(북)도 배울 수 있다. 광주시 지정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전승교육사인 양신승이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오후 5시) 판소리고법실에서 강의한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열린다. 가야금병창 예능보유자 문명자, 이영애가 각각 '아리랑', '새야새야', '오나라', '밀양아리랑' 등을 지도한다. 가야금병창 예능보유자 황승옥, 남도의례음식장 기능보유자 최영자, 이애섭 등의 강의도 수강할 수 있다. 또한 탱화장 기능보유자 송광무와의 '괘불탱화 그리기 및 채색' 프로그램과 악기장 기능보유자 이복수의 미니 장구만들기, 이성임 민화작가의 '모란도, 화접도 등 그리기' 등 프로그램도 예정돼 있다.

강좌당 10만 원이며 재료비 별도. 전통문화관 홈페이지나 전화로 접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누모리 밴드

힙한 국악이 온다

일렉트로 국악+K팝 '누모리 쇼' 22일 광주예술의전당

패션계의 '뉴'트로 열풍부터 프랑스 영화계 '누벨바그 운동, 심지어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있는 '뉴'진스까지(?). 문화예술은 시대와 장르를 불문하고 변곡점을 맞이할 때마다 '뉴'(nu-)라는 접두어를 차용했다. 새로운 것을 원하는 대중의 선호는 신선한 'new'를 만들어 냈고, 기성의 예술 문법을 해체하는 참신한 움직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국악계의 새로운 공연이 관객들을 찾아온다. 누모리밴드는 일렉트로 국악과 k-pop을 결합한 기획공연 '누모리 쇼'를 오는 22일(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연다. 이번 공연은 정가, 판소리, 민요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마련해 장르 간 융·복합 무대를 선보인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새로운(nu) 장단(Mori)'을 표방하며 국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기대하게 하는 누모리는 지난 2016년 정규앨범 '구나구나'를 통해 데뷔한 국악 그룹이다. 민요에 윤세연, 정가에 구민지가 소리하며 판소리에 이아진이 출연할 예정.

이어 꽹과리는 이주용, 장구 문상준, 베이스 신동철, 키보드 작곡은 이안나가 맡으며 기타 보컬 음악감독은 정준석이 담당한다. 특히 누모리는 지난 2018년 미국 국립예술의전당(J.F 케네디센터) 초청공연에 오른 바 있어 공연의 수준을 짐작케 한다.

한편 이번 누모리 쇼의 주요 컨셉은 '일렉트로 국악'이다. 동서양의 대표적인 두 장르 '전자음악'과 '국악'의 결합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판소리와 락, 사물놀이와 블루스, 민요와 팝, 정가와 재즈 등을 뒤섞어 새로운 음악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무대에서는 '문엽소', '흥보', '나를 그곳에 데려다주오', '와그리 화가났노', '너의 온도', '다람쥐', '까투리' 등의 국악 레퍼토리가 울려 퍼질 예정이다.

전석 1만 원. 자세한 내용은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지구 살리기' 해법 찾기

독립서점 '소년의 서' 황지운 작가와 8월 프로그램 4회 진행

갈수록 기후위기, 환경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극한호우와 이상기온은 환경에 대한 성찰을 요한다.

지구를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지구를 살리기 위한 대안은 있는 것일까?

'할 수 있을 만큼 가볍게, 여름'을 주제로 지구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는 프로그램이 열린다.

독립서점 소년의 서는 황지운 상주문학작가와 함께하는 8월 프로그램(매주 목요일 오후 7시)을 네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먼저 10일에는 한걸음가게가 추천한 '생태적 전환, 슬기로운 지구생활을 위하여'(최재천)을 토대로 황 작가와 참가자들이 이야기를 나눈다. 인간과 다른 생명체들이 공생할 수 있는 삶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다.

17일에는 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이 추천한 '적을수록 풍요롭다'(제이슨 히켈)를 바탕으로 작가와 참가자들이 토론과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책은 세계가 성장하는 것과 맞물려 상대적으로 빈곤과 불평등이 증가한 지구촌의 문제를 조명한다.

24일에는 '우리는 이 별을 떠나기로 했어'(천선란 외)를 읽고 지구와 환경에 대해 다채로운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마지막 31일에는 '남매의 여름밤'(윤단비 외 3)을 모티브로 지구와 환경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문화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황지윤 작가는 '나는 에디터다'(공저)와 동하 '정정당당 해치의 그렇지 정치', 소설집 '올해의 선택', 인터뷰에세이 '그리고 오늘의 행복을 모읍니다'를 펴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작가회의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